

실직 중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지원

납부예외자 납부 재개시 보험료 50% 최대 12개월까지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89년 7월 농업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136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에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1년 후 재예치시 금리 일정량 우대

전북은행, 'JB1·2·3 정기예금' 출시·기념 이벤트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날 30일 디지털 전용 상품 'JB1·2·3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JB 1·2·3 정기예금은 가입 시 자동 재예치를 설정해 놓으면 재예치가 될 때마다 우대 금리를 높여주는 디지털 전용 상품으로 1년 후 재예치 시에는 0.1%, 2년 후 재예치 시 0.2%, 3년 후 재예치 시에는 0.3%의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장기적인 예금 운영을 원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며, 자동 재예치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더한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 이 상품은 30일부터 전북은행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에서 가입 가능하다. 또한 출시 기념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0.6% 우대이율 제공 및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해당 상품 가입 시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1등 당



첨자에게 골드바 10돈을 이벤트 요건 충족 계좌에 한하여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상품 출시 전 네이밍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참여로 상품명이 정해진 JB 1·2·3 정기예금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으로 거래은행과 상품에 대한 이동이 쉬워진 금융 환경 속에서 전

북은행을 믿고 거래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며, 고객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모바일뱅킹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날 30일 서울 aT센터에서 2022년 제1차 빅데이터 CEO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농수산식품산업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빅데이터 농업혁신 선도한다'

aT, CEO 혁신자문위 열고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날 30일 서울 aT센터에서 2022년 제1차 빅데이터 CEO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농수산식품산업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식량주권 확보, 공공먹거리 개선을 비롯해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사 각 사업 분야에서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족한 빅데이터 CEO자문위원회는 빅데이터, AI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위원들의 연구 결과 및 현장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공사 사업의 디지털 전환에 이끔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먹거리 수급안정,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 등 공사 각 사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생성되고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 전략을 점검했다. 자문위원들은 공

사가 보유한 농수산식품산업 전반의 수많은 데이터 경쟁력을 활용해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각 분야별 정보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1세기는 영역 구분이 없는 시대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와 정보의 표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가 보유한 먹거리 산업 빅데이터에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공사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탄소 소재부품 공인시험기관 자격인증 획득

탄소진흥원, KOLAS로부터...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해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이 30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탄소 소재·부품 분야 공인시험기관 자격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KOLAS 자격인증은 플라스틱 및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관련 역학분야 총 16개 시험규격에 대한 것으로,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곡시험, 전단시험 등 기계적 물성 테스트를 통해 탄소소재·부품의 성능시험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신뢰성센터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자격인증을 통해 처음으로 탄소소재·부품에 대

한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진흥원에서 발급된 16개 시험규격에 대한 공인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가입한 106개국 102개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탄소기업들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별도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제품평가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출 활성화 및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진흥원은 탄소섬유와 관련된 시험분야까지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탄소제품 인증 지원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탄소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자격 획득은 국제수준의 시험평가기술 역량이 확보된 것을 의미한다"며 "탄소소재 전문 시험기관으로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공인시험 및 인증자원을 통해 탄소소재·부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OLAS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관이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해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김윤상 기자

도내 소기업 제품 경쟁력 제고

경진원, 시험분석 지원 참여기업 10일까지 모집

전북도와 전북경제중심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도내 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험분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인시험분석기관 등을 통해 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분 분석 등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해 제품 및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해 있는 50인 이하 제조·서비스 소기업이며, 제품 성능 또는 성분 분석, 영양성분 분석, 신뢰성 평가 등을 6월 30일까지 완료한 것에 대해 평가를 통해 시험분석비용의 최대 80%(기업당 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다만 생산제품이 아닌 원부재 시

험분석이나 대외활동목적이 아닌 내부 활용 목적의 참고용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 및 제의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진원 이현웅 원장은 "기술력 확보나 생산공정의 혁신 못지않게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특히 작은 지원금이지만 시험분석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우리 소기업 제품이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경진원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 관련정보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ba.kr) 알림 및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063-711-20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설명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접수기간(7월 10일)내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우정청, 생활정보 홍보우편 이용 고객 전단지 디자인 지원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임정규)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제도익을 준비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생활정보홍보우편'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단지 디자인을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사업정보가 필요한 신규 창업자 중·소상공인 홍보를 위해 우체국에서 전단지를 제작하고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배달하는 원스탑 서비스다. 전단지 제작 시 업종·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 시안 샘플을 선택하거나 기호에 맞게 상담·제작도 가능하며, 배송고객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원하는 지역, 세대수, 연령대 등 타겟 홍보가 가능하다. 연례대는 500명 이상 이용 가능하며, 우편요금의 40%를 감액해 준다. 우편물 제작비용은 1봉당 A4 기준 90원으로 저렴하다.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를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고객은 전단지 디자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모바일 대화형상품권,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이 제공된다. 또한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수신고객 130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서클데이터, 휴대용 선풍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며, 참여방법은 홍보우편물 봉투의 QR코드를 스캔해 링크된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임정규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상권 기반 중·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위해 이벤트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에게 받은 성원을 돌려드리고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정보홍보우편은 도내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하림 사회공헌 프로그램 통한 동반상생 주력

(주)하림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동반상생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하림은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지역사회 물심양면 등 3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초·중·고 대상별 프로그램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하림과 함께하는 초등강화생 도시시장', 중학생 대상으로는 '청소년 문화탐방,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나는 꿈꾸는 요리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림은 또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피오봉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 봉산은 소비자가족 10팀과 하림 임직원들이 동참해 자연보호 활동을 통한 생태환경을 가꾸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물심양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간 10억 원 상당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식품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림은 매월 익산시 행복나눔마켓, 전주시 엄마의밥상 등 다양한 곳에 자사 제품을 후원하고 있다. /뉴시스

축산 빅데이터 기술, 스마트폰으로 손 쉽게

농협 축산경제서 스마트 목장관리 플랫폼 'NH하나로목장' 출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서 빅데이터와 ICT 기반의 스마트 목장관리 플랫폼인 'NH하나로목장'을 공식 출시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농협이 지난해부터 개발해 온 'NH하나로목장'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축산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우농가가 목장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본인 농장의 한우개체 이력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목장의 축우 현황과 혈통정보 △농·축협을 통한 사료구입 내역 △축산물공판장 출하 기록과 번식·출하성적 △축산물 시세 등 경제 및 경영정보가 제공되며 농가의 가족생 산 및 농장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우개체사육소에 정액 신청과 함께 당첨결과 확인도 가능해져 농가 편의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호환 기종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